

「폭풍의 바다」에 나타난 인물들의 갈등과 해소

김 병 택*

차 례

- I. 프롤로그
- II. 인물들의 갈등
- III. 갈등의 해소
- IV. 에필로그

I. 프롤로그

모든 희곡 작품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와일더의 「우리 마을」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희곡 작품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예를 들면 「햄릿」은 주동인물 햄릿과 반동인물인 그의 숙부 사이의 갈등을, 「로미오와 줄리엣」은 주동인물 로미오·줄리엣과 반동인물인 그들 부모 사이의 갈등을 각각 다룬다.

그렇다고 해서 희곡 작품 속의 갈등이 반드시 인물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동인물과 그에게 주어진 운명 사이에서도, 주동인물과 그가 추구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서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물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서로 대립되는 욕망이나 가치들 사이에서도 각각 나타난다.¹⁾ 그러나 대부분 희곡 작품 속의 갈등은 인물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갈등은 희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데에 작용하는 내재적 원리이다. 강용준의 「폭풍의 바다」²⁾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은 어김없이 내재적 원리로 작용하며, 이 작품의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더 우세하게 독자를 사로잡는다. 따라서 그것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일은 「폭풍의 바다」의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작업이다.

이 글의 의도는 「폭풍에 바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갈등과 해소를 장면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데에 있다.

II. 인물들의 갈등

인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단일한 갈등인 경우보다 그 단일한 갈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적 갈등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폭풍에 바다」에서는 단일한 갈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적 갈등을 통해 주제가 구현된다. 「폭풍에 바다」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의 복합적 갈등은 최순탁과 김경자 사이의 갈등, 최순탁과 손성민 사이의 갈등, 최순탁과 최윤정 사이의 갈등, 최윤정과 최윤수 사이의 갈등, 김경자와 손성민 사이의 갈등 등이다.

1)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New York : Holt, Rinehart, Winston, 1981), p. 137. 참조.

2) 이 글에서 텍스트로 사용한 작품은 강용준, 「폭풍의 바다」 『폭풍의 바다』 (평민사, 1996)이며, 인용된 장면들의 인물과 대사 사이에 놓여 있는 콜론(:)은 필자가 임의로 삽입한 것이다.

1. 최순탁과 김경자 사이의 갈등

최순탁과 김경자 사이의 갈등은 이 두 인물이 지니고 있는 현재와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한 비분리적 또는 분리적 사고와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점들을 낱낱이 밝히는 데에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할 듯하다.

<장면·1>

순탁 :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어.

경자 : 모든 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는데 뭐가 또 부족하세요. 난 아무 할 얘기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 앞으론 출입도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탁 : 당신마저 이럴 수 있소? 낙선했다고 문전박대가?

경자 : 날 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젊고 유식한 마누라한테 부탁하세요.

<장면·2>

순탁 : 시집보냈다고 에미 도리 다한 게 아냐. 당장 정 서방한테 돌려 보내요.

경자 : 지들이 엔가요?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마세요.

초량모 : (들어오며) 곧 나온 데요. (경자 일을 거든다)

순탁 : 좋은 집 해놓고 파리만 날리는군?

(.....)

경자 : 소금 꺼내 놓은 거 있지?

「폭풍에 바다」에서 최순탁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현실 속의 평범한 인물과는 다르다. 그는 김경자와 이혼했으면서도 그녀의 집에 찾아와 무엇을 부탁하기도 하고, 딸 최윤정(최윤정의 생부는 손성민이다.)이 남편과 헤어져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김경자에게 '에미'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그는 이처럼 이혼하기 이전의 행동과 다름없는 행동을 취한다. 이것은 그가 과거의 삶의 방

식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독자에게 사려분별이 없는 인물로 비쳐진다.

위의 두 장면만 놓고 볼 때, 「폭풍에 바다」에서 최순탁과 함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인 김경자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다. 그녀는 최순탁과 이혼하기 이전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여자들이 보통 그러하듯, 최순탁의 부탁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녀가 최순탁과는 달리 과거의 삶의 방식을 현재의 삶의 방식에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면·1>에서 최순탁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앞으로 출입을 삼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과, <장면·2>에서 최순탁의 충고에 대응하여 최윤정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금을 찾는 것은 모두 그러한 점들과 크게 관련이 있다.

<장면·3>

경 자 : 난 께앗긴 것 없다. 내가 그 양반 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어차피 사람이란 자기 필요한 대로 취하는 것 아니냐? 탓할 게 없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가련한 인생이지.

윤 정 : 엄마, 저주를 내려 달라고 기도해도 시원치 못할 텐데 미련이라도 있어요?

경 자 : 살을 맞대고 산 게 몇 년이라고 정이 잊겠냐? 단신 월남해서 외롭게 살 때는 그렇게 억척스럽던 양반이 돈푼이나 모으니까 밖으로만 휘저어 다니더라. 소금에 절은 마누라만 품다가 치장하고 팽팽한 젊은애들 보니까 정신이 핵 돌만도 하겠지. 그래서 이중 살림나는 것까 지도 참을 수 있었다. 출세를 위해서 각시들 얻는 사람이 허다한 세상에 뭐 어쩌냐 싶었지. 서로 편하게 살다 기한 돼서 저승길로 갈라서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떨어져 살면서도 저게 내 서방이거니 생각만으로 위안이 되더라만, 막상 이혼장에 도장을 찍으라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 하지만 어쩌냐? 출세를 하겠다는데 도와 드려야지.

그러나 <장면·1>·<장면·2>에서와는 달리, 위 장면에 이르면 김경자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이 드러난다. 그것은 그녀가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와 이런저런 간섭을 하는 최순탁도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는 김경자와 동일하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김경자가 지니고 있는 이중성이 최순탁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 작가는 그녀의 이중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경자의 이중성은, 마음 속으로는 최순탁을 증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가련한 인생이지.'라고 말하거나, '하지만 어쩌냐? 출세를 하겠다는데 도와 드려야지'라고 말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그러한 이중성만으로 최순탁에 대한 김경자의 감정이 부드러워졌다고 할 수는 없다. 잘 따져 보면 그녀는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어쩌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체념하고 있다고 해야 옳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이중성과 그녀의 이중성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장면·4>

순탁 : (유리창 밖 바다를 바라보면서) 철거머리같은 더러운 자식. (윤정의 인기척에 현관 밖의 경자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지 당신은 나한테 복수를 하려는 거야. 최순탁이 하고 이혼했으니 이제 마음놓고 와서 데려가라 연락한 거지? (어이없다는 듯이 실소를 지으며) 호호호, 내가 속았어. 내심 은근히 이혼을 바라고 있었어. 당신은 아직도 그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지?

경자 : 애들이 듣고 있어요.

순탁 : 애들 생각했다면 어떻게 손성민이란 놈을 불러들일 수 있어?

위 장면은 최순탁이, 일본에서 살다가 조총련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참가함으로써 30년만에 이루어진 손성민의 귀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 인식은 순전히 최순탁 자신의 추측에 근거를 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순탁과 김경자 사이의 또 다른 갈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김경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최순탁이 부리고 있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공격이 억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공격에 대해 '애들이 듣고 있어요.'라는 짤막한 대꾸로 응수할 뿐이다. 그런데도 독자는 김경자가, 최순탁이 부리는 터무니없는 억지에 약간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것은 그녀가 그가 부리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장면·5>

순탁 : 처음부터 당신은 날 기만했던 거야. 결혼하고서도 마음 속으로 항상 그놈만 생각했지?

경자 :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로 살면서 재산도 모았고 출세도 했고 애들도 장성하도록 키웠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탁 : 그래서 우회가 없다 이 말씀인가? 그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억울하지 않겠지?

경자 : 우린 남남입니다. 더 이상 내 일에 참견하려 마세요.

순탁 : 난 그 꼴은 못 봐. 당신이 그놈을 끌어들이 날 조롱하려 하지만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어.

경자 : 지레 짐작 마세요.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순탁 : 그럼 혼사를 뭘로 생각해서 윤선일 그 놈 아들과 짝지으려는 거야?

<장면·1>에서처럼 위 장면에 나타나는 최순탁과 김경자 사이의 갈등도 두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비분리적 또는 분리적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다. 그는 분명히 그녀와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들추어내고, 그녀는 '우린 남남'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내 일에 참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폭풍의 바다」에서 그가 보여 주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집착

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폭풍의 바다」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나름대로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이제 두 인물 사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의 결혼 문제까지를 야기시킨다.

위 장면에서도 최순탁의 억지는 계속된다. 이전에 비해 그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경자를 공격하고, 김경자는 그의 공격을 끈질기게 방어한다. 그의 공격에는 그녀가 손성민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방어에는 자신이 결코 손성민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각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2. 최순탁과 손성민 사이의 갈등

최순탁과 손성민 사이의 갈등은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다. 그 속에는 손성민이 보여 주는 아픈 역사에 대한 참회도 있지만, 최순탁이 보여 주는 아픈 역사에 대한 정당화도 있다. 또한 거기에는 옛사랑을 회복하려는 손성민의 노력과, 김경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최순탁의 몸부림도 함께 들어 있다.

<장면·1>

순탁 : 뻔뻔스러운 놈. 우리 가정에 흠먼지를 뿌린 게 누군데, 그 따위 소리야? 흥 옛날엔 날 보고 미제국주의의 개라더니 자신은 일본산 똥개가 되셨나? 금세 냄새 맡고 나타나다니. 그래 이번엔 내 딸년마저 망쳐 놀 작정인가?

성민 : 나도 인생을 헛살았지만 당신도 지나간 세월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탁 : 난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성민 : 죄없는 무수한 젊은이들을 빨갱이로 몰라 처단한 게 누구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고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거에 나섰었소? 후안무치한 인간 같으니.

순탁 : 네놈이 날 비방할 자격이나 있어? 벌써 죽었을 목숨 구해 줬더

니 아직도 빨갱이 때를 완전히 못 벗었군? 이봐 이 사람이 왜 나와 결혼했는지 들어봐. 난 이용당했어.

경 자 : 그만들 하세요. 모두 내 탓입니다.

성 민 : 칠면피도 유분수지. 당신은 재산이 탐이 나서 경자를 노린 걸 세상이 다 알아.

순 탁 : 장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혼사를 서둘렀지만 이 사람은 자네를 도망 보내기 위해 나한테 매달린 걸 몰라?

성 민 : 그런데 왜 경서를 죽였소? 이 집안 상속자를 도망 보내 놓고 뒤에서 총을 쏜 게 누구야?

서청이었던 최순탁은 일본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손성민이 갑자기 나타나 가정을 망치려 든다고 언성을 높이고, 이에 맞서 손성민은 무수한 젊은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단한 최순탁이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세운다. 4·3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위 장면에서 작가는 손성민의 입을 빌려 최순탁이 저지른 과거의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이 때에 맨먼저 드러난 것은 김경자의 오빠이며 손성민의 친구인 김경서가 죽게 된 것이 최순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위 장면에서 최순탁과 손성민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이념이다. 두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며, 따라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상대방을 관대하게 이해할 수 여지가 거의 없다. 이쯤 되면 독자는 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작가는 두 인물 사이의 갈등에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독자가 두 인물의 갈등에 정의감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어 보인다. 4·3은 정의감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장면·2>

순 탁 : 나도 시대의 희생자야. 세월이 좋으니까 당신들이 날 몰아 세우

지만, 난 지금도 빨갱이라면 치가 떨려. 당신들 부모가 반동으로 몰려 처형당하고 재산까지 빼앗겼다면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소? 빈털터리로 월남해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정부에서 빨갱이 잡을 토벌대를 모집한다기에 난 지원했지. 그게 서청이야. 우린 적개심 때문에 물불 가릴 여유가 없었어. 경서의 죽음을 막지 못한 건 지금도 후회하오. 허나 우린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죄밖에 없어.

성 민 : 그래요. 지난 세월의 먼지 같은 애긴 다 잊읍시다. 나도 가슴에 증오와 저주의 칼을 품고 살았던 젊은 시절을 부끄러워하고 있소.

순 탁 : 그런 똥판지같은 소린 집어치워요. 그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이라면 무슨 염치로 나타났어? 옛사랑을 못 잊어선가?

성 민 :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과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당신한테 경자는 돼지발에 편자였어. 머리 좋고, 부지런한 경자가 탐이 난 게 아니라 물려받을 재산과 결혼한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난 되찾고 말겠어.

경 자 : (일어서며) 날 욕되게 마세요. 결혼한 여잔 가정에서 천국을 찾아요. 허나 지금은 모든 걸 버리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날 이대로 내버려둬요.

순 탁 : 흥 연극들 하고 있구만. 말해 봐. 날 우롱하기 위해 정조를 저놈한테 바친 거지? 아니면 겁탈당한 거야? 어느 쪽이야. 누구든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부정해 봐. (사이) 왜 말들 못해?

위 장면에서 손성민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순탁은 손성민과는 정반대이다. 최순탁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데에 급급하고, 손성민과 김경자의 관계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최순탁이 그의 전 부인인 김경자를 타인으로 여겨버리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순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김경자를 붙잡아두고 싶기 때문이다.

위 장면에서 김경자는 최순탁과 손성민 사이의 갈등에 수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말은,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순탁과 손성민이 접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녀는 두 인물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장면에서 손성민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그만큼 그가 더 인간적인 인물임을 말해준다.

<장면·3>

성 민 : 우리에게 진득한 그리움과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 않소.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소. 난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쁘오.

경 자 : 당신은 사랑에 눈 먼 환자니 지팡이가 필요해요. 내가 지팡이가 되겠어요.

성 민 : 고맙구려. 그 정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니.

순 탁 : 당신은 아무데도 못 가. 이 최순탁일 떠날 수 없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아야 해. 김경자는 죽어서도 최순탁이 마누라일 뿐이야.

경 자 : 당신은 내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난 하루라도 인간들과 살고 싶단 말입니다. 초량 어멈. 내 물옷과 태왁 어디 됐지?

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순탁과 손성민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이 이념뿐만 아니라 김경자의 심리적 태도에도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녀의 '당신은 내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난 하루라도 인간들과 살고 싶단 말입니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그녀가 최순탁 쪽이 아닌, 손성민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는 최순탁과 손성민의 싸움에서 최순탁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녀의 그러한 태도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손성민을 승리하게 한 요인이다.

위 장면에 나타나는 손성민은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인물은 아니다. 그것은 최경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가 최순탁을 향해 '당신은 내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난 하루라도 인간들과 살고 싶단 말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폭풍에 바다」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최순탁과 최윤정 사이의 갈등

김경자는 손성민의 아이를 임신한 후 최순탁과 결혼하게 된다. 최윤정은 최순탁과 결혼한 후에 태어난 딸이다. 최윤정이 어릴 때에 최순탁은 최윤정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심하게 학대한 적이 있는데, 최윤정은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최순탁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장면〉

순탁 : 이년이 어디서 양탈이야?

윤정 : 애비 없는 더러운 년이라고 이모한테 양육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친 대우 받으시겠어요?

순탁 : (돌아서며 헛기침만) 어허. 나 원 참.

윤정 : (악에 받쳐) 근육이 터질 지경으로 매질한 게 누구예요?

순탁 : 그건 우연한 실수였다고 몇 번씩 말해야 알아들겠어?

윤정 : 흥. 실수라구요? 폭도를 고문하듯 밥까지 굶기면서 며칠을 창고에 가두었어요. 왜 그랬지요?

순탁 : 말을 안 듣기에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려던 거였어.

윤정 : 난 이미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대구요. 어떻게 해야 말을 듣는 거죠? 짐승 같은 성욕까지 만족시켜 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인가요?

순탁 : 닥쳐. 년 애비를 어떻게 보고 그 따위 소리아?

위 장면만을 놓고 보더라도 최순탁은 결코 인간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의 인간성은 난폭하며 특수하기까지 하다. 독자는 그와 같은 인물을 통해 현실의 어디인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정적 비극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그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삶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와도 다분히 관련이 있다.

위 장면에서 최순탁을 향해 퍼붓는 최윤정의 말은 일종의 저주와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최윤정을 학대한 것에 대해 우연한 실수라

고 변명하고 있지만, 최윤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학대이다. 그 점은 그가 할말이 없게 되자 최윤정을 향해 '닥쳐. 넌 애비를 어떻게 보고 그 따위 소리야?' 라고 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4. 최윤정과 최윤수 사이의 갈등

최윤정과 최윤수는 아버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오누이 사이이다. 정서방과 최윤정을 결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최순탁과 최윤수는 서로 공모하여 정서방으로 하여금 최윤정을 범하게 한다. 결국 최윤정은 정서방과 결혼하지만 나중에는 헤어지게 된다. 이것이 최윤정과 최윤수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배경이다.

<장면>

윤 정 : 그 정가눔한테 날 내던진 게 누구 작품인데? 그렇게도 내가 저 추장스런 존재였니?

윤 수 : 시집보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헛소리야?

경 자 : 정 서방이 그만 착하면 됐다. 넌 일등 신부라도 되는 줄 알아. 더 늦기 전에 가 다시 살자고 빌어.

윤 정 : 착해요? 난 깜빡 속았대구요.

경 자 : 몰라도 속고 알아도 속는 게 여자의 운명이라잖나?

윤 정 : 그게 아니에요. 엄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모든 게 계약이였대구요. 윤수 너 그걸 영원히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윤 수 : 뭐? 계약?

윤 정 : 최순탁 씨하고 네가 공모했다는 걸 정가눔이 실토했어.

경 자 : 애 윤정아?

윤 정 : 엄마도 알고 있죠?

경 자 : (의아해서) 윤수야, 이 무슨 벼락 맞을 소리냐?

윤 정 : 정가눔이 날 덮치게 하고 그걸 빌미 잡아 후딱 식을 올리게 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경 자 : 맏소사, 그게 사실이나?

위 장면에서 최윤정은 최순탁과 최윤수가 공모하여 정서방과 결혼식을 올리게 않을 수 없게 한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고 있다. 정서방과 헤어진 최윤정으로서도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최윤정과 남동생 최윤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그 갈등은 최윤정이 정서방과 헤어지게 됨으로써 생긴 갈등이며,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이다. 그러나 최윤수의 생각은 최윤정의 생각과 다르다. 그는 '시집보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헛소리야?' 에서 보듯이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 장면에서 드러나는 최윤정과 최윤수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최윤수의 불순한 의도가 그 원인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최윤정과 최순탁 사이의 갈등과도 관계가 있다. 최윤정과 정서방의 결혼은 최윤수와 최순탁의 공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자는 위 장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녀가 '그게 사실이나?' 고 물었을 때 최윤수가 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사실임을 의미한다.

5. 김경자와 손성민 사이의 갈등

김경자와 손성민의 갈등은 심각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이다. 그것은 그녀의 '그래서 날 동정하십니까? 소박맞은 여편네라고 불쌍하게 보이세요? 세상을 오래 사셨으면 아실 만한 양반이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는 말과, 손성민의 '난 그냥 떠나지 않겠소. 당신을 혼자 내버릴 수가 없단 말이오. 당신의 날 따르지 않겠다면 내가 당신 곁에서 살겠소' 라는 말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그녀와 손성민의 갈등은 「폭풍의 바다」에 나타난 인물들 사이의 갈등 중에서 가장 정도가 약한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장면>

경 자 :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부질없는 생각은 마세요. 난 저 바다만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성 민 : 그래 당신에겐 바다밖에 필요 없지. 허나 저 수평선가에 떠오르는 뭉게구름 건너편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걸 어찌 모르시오?

경 자 : 거긴 당신이 좋아서 살던 세상이지 나하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날 동정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마세요. 난 지금이 가장 편안하답니다.

성 민 : 난 그냥 떠나지 않겠소. 당신을 혼자 내버릴 수가 없단 말이요. 당신이 날 따르지 않겠다면 내가 당신 곁에서 살겠소.

경 자 :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우릴 의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짧은 시절 불장난이 무슨 자랑이라고 주책을 부리시려는 겁니까?

성 민 : 한때의 불장난이라고? 당신은 그리 생각했소?

그러나 「폭풍에 바다」에서 김경자와 손성민 사이의 그 갈등은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작가가 만일 이 두 인물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작품의 결말은 독자에게 최소한 부분적으로 밋밋한 모습을 보여 주었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최경자가 손성민을 따라 일본으로 가게 되는 「폭풍의 바다」의 결말은 비로소 극적인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경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손성민의 애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녀에 대해 지니고 있는 손성민의 애정은 헌신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면서 또한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김경자는 자신에 대한 손성민의 애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김경자와 손성민 사이의 갈등은 애정 확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Ⅲ. 갈등의 해소

원래 한국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바다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살어리 살어리랏다/바라래 살어리랏다”에서 보듯이 평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이다. 그런데 「폭풍에 바다」에 나타나는 바다는 삶의 절대적인 근원으로서의 바다이다. 또한 그것은 등장인물인 김경자가 최순탁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손성민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되는 바다이기도 하다.

<장면·1>

윤 선 : 에텐의 절벽 밑에 있다는 바닷속 동굴이에요. 옛날엔 그 속에 얼굴 만한 전복이 많았는데 그 입구를 커다란 문어들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도 못했구요. 머구리선(잠수기선) 대놓고 일을 하려면 그 문어들이 숨구멍 대롱을 막아버려 작업을 못했대요.

위 장면에서는 바닷속 동굴이 최윤선의 입을 통해 설명된다. 그러나 「폭풍에 바다」라는 작품 전체 속에서의 바닷속 동굴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최윤선의 말대로라면, 바닷속 동굴의 바위문은 태풍이 불 경우에만 열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자는 최순탁과의 사이에서, 또는 손성민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그곳에 가기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면·2>

윤 수 : 태풍이 북상중이래요.

경 자 : 그거 반가운 소식이구만. 이번엔 제발 바위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웃음을 흘리면서) 흐흐흐. 난 맨 먼저 달려갈 거야. 먼저 따는 사람이 입자니까.

윤 정 : 엄마 정말 죽고 싶어서 그래? 태풍 속에서 물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개죽음이야.

경 자 : 너희들은 모른다. 그건 네 할머니, 아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 이전부터 모두가 소망했던 일이야. 설령 거기가 내 무덤이 될지언정 무슨 걱정이냐? 잠녀는 바다에서 죽어야 이어도에 간다.

윤 수 : 넋두리 그만둬요. 어머니 언제까지 환상 속에 살 겁니까? 그러니 항상 당하게만 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바라보세요. 왜 어머니가 아버질 빼앗겼어요?

김경자가 태풍이 부는 날에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바다를 삶의 절대적인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바다는 그녀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모든 잠녀들이 가고 싶어했던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바다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대체적으로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김경자의 열망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잠녀는 바다에서 죽어야 이어도에 간다.’라는 그녀의 말에서, 그리고 ‘그러니 항상 당하게만 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바라보세요. 왜 어머니가 아버질 빼앗겼어요?’라는 최윤수의 말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장면·3>

경 자 : 난 내 방식대로 산다. 누구 하나 도움 안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 저 넓은 바다와 튼실한 육신뿐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한테 물려줄 건 그것밖에 없다. 허나 물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니 너희들이 바다를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위 장면에서도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김경자의 마음은 여전하다.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다. 그녀는 그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한다. 그것은 일종의 숙명वाद과 같은 것이다. 그녀가 바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자식들이 바다를 버려도 자기는 바다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욱더 그렇다. 위 장면들에서 결국 우리는 제주 잠녀들의 숙명적인 삶의 방식까지를 말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장면·4〉

경 자 : 저 높다란 파도 속에 바위문이 열리면 검은 굴이 보인다. 윤정 아 어서 너도 가자. 빨리 따라와. (미친 듯이 바다로 뛰어나간다)

〈장면·5〉

경 자 :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부질없는 생각은 마세요. 난 저 바다만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장면·6〉

경 자 : 그래요. 바다가 생각나면 언제고 돌아올 겁니다. 당신도 과수원을 관리하려면 돌아와야 하잖아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경자에게 있어서 바다는 삶의 절대적인 근원이며 삶의 방식과 관련된다. 그런데 바다가 독자에게 그러한 의미로 전달되는 데에 기여한 것은 작가가 「폭풍의 바다」에 장치해 놓은 패턴(pattern)이다. 이 작품에는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표명하는 부분이 다섯 번 반복되어 있다. 그것은 무심코 이루어진 반복이 아니라 작가가 일부터 설정한 의미 있는 반복이다. 이 의미 있는 반복의 기법은 제주 근대사를 헤쳐온 제주 잠녀의 굴곡 많은 삶을 이야기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면·6〉에서도 김경자는 바다에 대한 변함 없는 집착을 보여 준다. 비록 손성민을 따라 일본에 간 후에도 바다가 생각나면 언제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김경자에게 있어서의 바다는 삶의 절대적인 근원이며 삶의 방식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있어

서의 바다는 당연히 그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되는 바다이기도 하다.

IV. 에필로그

지금까지 「폭풍의 바다」에 나타난 인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과 해소의 장면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순탁과 김경자 사이의 갈등은 이 두 인물이 지니고 있는 현재와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한 비분리적·분리적 사고 또는 이 두 인물이 지니고 있는 이중성 등에서 비롯된다. 최순탁은 이혼하기 이전과 다름없는 행동을 취한다. 그것은 그가 과거의 삶의 방식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경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보통의 여자가 그러하듯 최순탁의 부탁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그녀가 최순탁과는 달리 과거의 삶의 방식을 현재의 삶의 방식에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순탁과 김경자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김경자의 그것은 최순탁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

둘째, 최순탁과 손성민 사이의 갈등은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다. 두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며, 따라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상대방을 관대하게 이해할 수 여지가 거의 없다. 이쯤 되면 독자는 이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전개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작가는 두 인물 사이의 갈등에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최순탁과는 달리 손성민은 과거의 일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손성민이 인간적인 인물임을 말해준다.

셋째, 김경자는 손성민의 아이를 임신한 후 최순탁과 결혼하게 된다. 최윤정은 최순탁과 결혼한 후에 태어난 딸이다. 최윤정이 어릴 때에 최순탁은 최윤정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심하게 확대한 적이 있는데, 최

윤정은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최순탁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최순탁은 결코 인간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의 인간성은 난폭하며 특수하기까지 하다.

넷째, 최윤정과 최윤수는 아버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오누이 사이이다. 정서방과 최윤정을 결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최순탁과 최윤수는 서로 공모하여 정서방으로 하여금 최윤정을 범하게 한다. 결국 최윤정은 정서방과 결혼하지만 나중에는 헤어지게 된다. 이것이 최윤정과 최윤수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배경이다. 최윤정과 최윤수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은 최윤수의 불순한 의도가 그 원인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최윤정과 최순탁 사이의 갈등과도 관계가 있다. 최윤정과 정서방의 결혼은 최윤수와 최순탁의 공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김경자와 손성민의 갈등은 심각한 갈등이 아니라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이다. 그런데 그녀와 손성민의 갈등은 「폭풍의 바다」에 나타난 인물들 사이의 갈등 중에서 정도가 가장 약한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김경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손성민의 애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녀에 대해 지니고 있는 손성민의 애정은 헌신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면서도 비현실적이다. 김경자는 자신에 대한 손성민의 애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김경자와 손성민 사이의 갈등은 애정확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김경자가 태풍이 부는 날에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바다를 삶의 절대적인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바다는 그녀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모든 잠녀들이 가고 싶어했던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바다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김경자의 바다에 대한 열망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바다는 삶의 절대적인 근원이며 삶의 방식과 관련된다. 그런데 바다가 독자에게 그러한 의미로 전달되는 데에 기여한 것은 작가가 「폭

풍의 바다」에 장치해 놓은 패턴(pattern)이다. 이 작품에는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표명하는 부분이 다섯 번 반복되어 있다. 그것은 무심코 이루어진 반복이 아니라 작가가 일부러 설정한 의미 있는 반복이다.

결론적으로 「폭풍의 바다」는 인물들의 갈등과 해소를 통해 제주의 근대사를 헤쳐온 제주 잠녀의 굴곡 많은 삶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